

사설

첫 범종교예술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KBS가 후원하는 '97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간 음악이나 미술의 장르별 종교간 교류는 있어 왔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종교가 참여한 범종교예술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 속담에도 합한 두 사람이 흠여진 열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고 또 마음이 맞으면 부처님도 부러워한다는 속담도 있다. 이런 속담의 진정한 뜻이 바로 화합하며 잘 화합하고 알맞게 어울리고 서로 마음을 통 터놓고 협의하여 마음과 힘을 모아 종교심을 함께 실현해 보자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한 종교국가 아니다.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믿는 다원주의적 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다원적인 종교를 수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흔히 종교간 갈등이 심하여 서로 자기의 종교 이외에는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를 흔히 보아온 터에 '97 대한민국종교예술제'는 신선한 희망을 준다.

종교와 예술은 서로 밀접상통하는 점이 있다. 어느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는 등의 세속적인 가름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예술이 지향하는 목표가 모두 우주에 인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함께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대한 종교나 모든 예술은 이 세상이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가 없는 사회보다 훨씬 아름다워야 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아름다워야 한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마음이 풍요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예술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도덕적이고 추하고 욕심이 많으며 비인간적이라면 어찌 그를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찌 그를 진정한 예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종교와 예술은 우리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소금이다. 종교와 예술은 우리들을 무한한 우주 속의 생명과 합일시켜 그 속의 자신들을 자각하게 만들어 준다.

이번 '97 대한민국종교예술제'는 그 행사 자체가 다원적 종교간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계기도 되고 종교와 예술이 지향하는 성숙한 목표를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기원해 본다. 예술을 사랑하고 사리를 알며 종교적인 양상을 가진 사람은 그가 세상의 어디에서 살던 어떤 형태의 종교를 믿던 모두가 하나인 또 다른 종교의 교인인 것을 실감하는 계기도 되기를 바란다. 비록 그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진리는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종교의 특성과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를 배워야 한다. 이번의 범종교예술제가 일회성으로 마치지 말고 해마다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상호의 존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발전 되었으면 한다.

서로 다른 종교집단이 많이 모일수록 자칫 주장이 경직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울 수도 있으나 이점은 특히 유의하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속가의 유행어처럼 서로 양보하고 서로 권한다면 이 또한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누가 더 이름이 앞서고 누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주는 등의 속된 탐욕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이번 범종교예술제는 명실상부한 화합과 조화와 협동의 근본을 실천한 본보기 예술제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수호 대정부 성명

조계종총무원장 입장료 폐지·농지법개정등 3개항 촉구

조계종이 국·도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강도높게 주장하며 정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 대한 정부의 공원입장료 분리징수로 조계종과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22일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의 골자는 △국·도립 공원의 입장료 폐지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전통사찰의 문화환경 종교환경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은 허용돼야 한다 △민족문화 보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촉구한다 등이다.

이번 성명은 공원입장료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의 총체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성명과 관련 교계는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주무부처에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계는 정부의 '무반응'을 비난하며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으로 공원관리 보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농지법 개정과 민족문화 보존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공원의 입장료 폐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점을 찾으려는 조계종의 입장이 확고히 반영됐다는 평이다.

그간 공원 입장료 폐지를 강도높게 주장해 온 조계종이 '민족문화의 보호'라는 사찰의 기능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입주사에 걸린 '공원입장료 폐지' 현수막.

총무원장성명 '지지' 교구본사 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설조)은 22일 제주도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국립공원 입장료 철폐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회의에

서 △사찰 입야의 국립공원지역의 △공원입장료 폐지 △22일 발표된 조계종 총무원장의 성명적극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지모임은 종단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주지 및 신령단체장과 대책을 논의해 교구연합 결의대회와 전국규모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8일부터 종정감사 조계종, 109개 사찰대상

조계종 97년도 정기 총무원 정 감사가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종정감사의 대상은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 납부사찰 등 모두 109개 사찰이다.

조계종 해외불교 파악나섰다

5개권역별 준비위원장 위촉... 한국불교 세계화 '가속'

조계종이 해외사찰들의 관리와 해외포교 지원을 위한 해외주요지역 불교실태파악 작업을 시작했다.

조계종은 5개권역을 선정 각 지역별 준비위원장 위촉장을 24일 수여했다. 지역별 준비위원장에는 미주지역 LA 관음사 도안스님, 유럽 및 아프리카지역 프랑스 길상사 회일스님,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일본 고려사 태연스님, 중앙 및 서남아 지역 인도 녹아원 도용스님,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 관음사 정오스님 등이다.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스님들은 각 지역에 대한 한국불교의

진출현황은 물론 각국 불교의 활동상황과 각종 정보를 년2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총무원에 보고하게 된다. 총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포교의 효율화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에 산재된 사찰들의 종단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위촉장 수여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 총무원이 해외사찰들을 관리하고 포교업무를 지원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외 불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지 사정에 맞는 포교전

략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재양성과 활동을 통해 해외포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준비위원장은 "그간 개인의 인력에 의해 진행되어 온 해외포교는 많은 한계를 느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종단의 지원과 법적인 보호아래 보다 폭넓은 포교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KAL 참사 영령 49재 조계사·팜 현저서

팜 KAL기 추락사고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한 49재가 22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능관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49재에는 유가족 20여명과 대한항공 황조연 이사, 아가나주제 이정재영사등 30여명이 참석, 회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한편 23일 사고현장인 팜 니미츠 언덕에서도 49재가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현스님과 사회국장 일화스님이 종단을 대표해 참석, 희생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진각종이 위덕대 군승선발대학 지정문제에 대한 독자추진방향을 공식발표하고 나섰으므로 위덕대 군승후보지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진각종은 지난달 중순 열린 종단간부회의에서 조계종총무원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독자적 추진에 따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진각종은 빠른 시일내에 국방부와 조계종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 문제를

위덕대 군승후보지정 '새국면'

공론화하는 한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법적문제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진각종이 독자추진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위덕대 불교학과 학생의 군승입용을 막는 법적조항이 없다는 자신감 때문. 실제로 '장교요원선발규칙'의 병역법 제58조 3항에 '소속 종교단체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자격이 명시돼 있고, '군승사관후보생 관리규정' 제8조 3항에는 '자격이 갖추어지는(4년제 대학을 말할) 불

내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지난해 9월 총무원회의에서 결정된 반대입장을 국방부에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이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군승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위덕대의 군승후보선발 지정을 막는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계여론이 더욱 확산될 경우 이 문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현대만평



의미 알려 올리는 '새벽예불'

해인사 판전보수 '내년 2월로'

해인사 판전(국보 제52호) 보수가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해인사와 문화재관리국의 세부일정 및 계획에 관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올8월 보수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재관리국은 10월1일 해인사에 기술조사단을 파견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이나 해인사측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대로 보수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판전보수는 동결현상이 발생하는 겨울에는 공사가 불가능해 내년이나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인사는 공사에 대비해 육송연목을 건조중에 있으며, 판전기와로 쓸 특대(特大瓦)를 준비중이다.

팔공산 은해사 9월 보살계 철야정진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온 세계가 법당 아닌 곳이 없으며 지혜와 자비 발원하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불의 길 열려 있습니다. 이슬을 녹이듯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녹여 줄 것입니다.

팔공산 은해사는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과 원효, 일연, 설총 삼성현(三聖賢)의 상주도량입니다. 은빛같이 온 산하를 뒤덮고, 법의 진리가 함께하여 바다물결이 충만한 듯 은해(銀海)의 불법(佛法)이 살아 숨쉬습니다. 신라때 명산대찰의 하나이지만 유수천년에 먹구름 지나가고 작은 햇빛의 서운이 도래하여 산내 비구, 비구니 선방과 조계종 교학의 최고 학부인 승가대학원에서 눈푸른 남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보배이신 동국 일타 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교계 대덕스님들을 3사 7중으로 모셔 보살계 설계의 대복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1년 9월

三 師

전계대화상 東谷日陀
갈마아사리 應然高兆
교수아사리 如天無比

七 證

法融智霞 (승가대학총장)
靑庵法祖 (고운사 주지)
中和法岫 (은해사 주지)
抱山慧印 (약천사 주지)
包雲性眞 (청곡사 주지)
錦牙慧園 (남국 선원장)
一霞無空 (동화사 주지)

일시

2541년 10월 11일 (음 9. 10) 토:15:00 ~ 10월 12일 11:00 (1박 2일 철야정진법회)

장소

팔공산 은해사 금강계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보살계 동참금

2만원

문의전화

은해사 (0563)35-3318~9
서울 평불협 (02)735-5558~9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中和法陀 합장

